

투표용지 부족에 갇힌 참정권



윤 위 중 의
잠시 쉼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오점을 남겼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주권을 행사하려 온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종이 몇 장이 모자라 투표를 못 했다는 상식 밖의 참사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무대다. 선관위의 부실한 준비와 안일함은 이 신성한 무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체제이며, 그 권력은 오직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성스러운 권리를 강제로 박탈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반헌법적 사태다. 더군다나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배정받지도 50%만 인쇄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물리적 장벽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기술의 발전으로 선거 행정이 낱알이 스마트해지고 지팡이하던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물품 관리에 구멍을 낸 것은 참담한 역설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목소리를 소중히 여겨야 할 국가 기관의 기본 태도와 철학이 부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현장에서 황당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한 수요 예측 앞에 무력하게 꺾였기 때문이다.

한 표의 가치는 엄중하다. 그 한 표를 위

해 수많은 선조가 피와 땀을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 선관위는 그 역사의 무게를 망각한 채, 가장 기본적인 선거 물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주권을 하공으로 날려버렸다.

선관위는 이번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행정 마비에 가까운 무능을 보여준 관련 책임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문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방선거 투표 하루 전인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오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투표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저 발표를 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지방선거 준비상황을 들여다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정치부장 yhj@metroseoul.co.kr

'고점판독기' A씨의 월요일



기지 수첩
허 정 운
(자본시장부)

투자자 A씨는 8일 장 초, 자신의 주식 계좌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8% 넘게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1560원을 넘어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도 속절없이 밀려났다. 유명한 '인간 고점판독기'인 A씨의 계좌도 이 충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주식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뻐해야 한다. 지금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슈가 됐지만,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까지 지워 주지는 못했다.

하루 만에 전체 수익률의 10%가 증발했다. 순간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라는 생

각이 스쳤지만 밀려드는 업무에 MTS 앱을 켰다.

불과 사나흘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지난 2일 코스피는 8800선을 돌파했고 시장은 '만스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열풍,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8일 아침 시장이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 넘게 급락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며칠 전까지 낙관론을 이야기하던 시장은 이제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시장은 언제나 자신을 설명할 '이유'를 찾아낸다는 점이다.

오늘 때는 더 오늘 이유를 찾고, 내릴 때는 더 내릴 이유를 찾는다. 코스피 9000 전망이 쏟아질 때는 위험이 잘 보이지 않고, 서킷브

레이커가 발동된 날에는 희망마저 사라진 듯 느껴진다.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 중동 정세 모두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다만 하루 만에 바뀐 것은 주가지지 기업의 경쟁력까지는 아니다. 브로드컴 주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해서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일수록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지, 환율이 얼마인지,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는지는 매일 바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자들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 그리고 펀더멘털이다.

ps. A씨는 멀리 가지 않다. 나흘 전 '9000피' 기획 기사를 준비하다 오늘은 검은 월요일' 발생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 본인이다.

/zelkov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음 4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60년생 내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너무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84년생 주위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49년생 노력이 빛을 보고 성공하게 됩니다. 61년생 처음은 어렵지만 갈수록 좋아 집니다. 73년생 거래나 소송은 미루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85년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니 기쁘 하루입니다.



50년생 목표를 조금 낮추면 편해집니다. 62년생 마음에 갈등이 있으니 일이 더디겠습니다. 74년생 운이 좋으니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다투면 다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51년생 길함과 흥분이 교차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75년생 어렵게 얻었으니 더욱 기쁩니다. 87년생 겸손해야 주위의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명예가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으니 기쁩니다. 76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8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53년생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사업의 흐름이 바뀌니 새로운 것이 좋아 보입니다. 77년생 방향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89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54년생 너무 믿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매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78년생 준비 없는 시작은 금물입니다. 90년생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67년생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참는 게 이득입니다. 79년생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91년생 소신있게 추진하면 끝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6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68년생 주위가 함성하니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0년생 뜻하던 것들이 잘 이루어 집니다. 92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57년생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근심은 버려야 합니다. 69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지만 바라던 대로 이루어 집니다. 81년생 모든 것이 길하니 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운도 환하고 마음도 환합니다.



58년생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70년생 욕심만 줄이면 만사 형통입니다. 82년생 겸손하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 게 좋습니다. 94년생 소신을 굽히지 말고 계속 추진하세요.



59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71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하니 써우지 말고 회개하세요. 83년생 일보다는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95년생 너무 큰 꿈보다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김상회의四季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휴일제도가 생기고 나니 올 석가탄신일은 연휴가 되었다. 성인의 탄생이 2600년을 지나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막론하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는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반면에 석가탄신일은 1975년에야 소송을 거쳐 어렵게 얻어낸 결실이었는데 어찌 됐든 모두의 황금 휴일이 되었다. 대승불교 권인 우리나라는 음력 4월 초파일을 부처님 탄신으로 하고 있지만, 남방 불교국가들에서는 '-vesak'이라 하여 음력 4월 15일에 부처님 탄생일과 성도일, 열반일을 한 번에 기념한다. 따라서 상좌부 전통의 남방 불교국가들은 한 달 내내 축제와 다름이 없다고 한다. 고대 인도의 사키족 왕족 집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분은 싯타르타 고타마였던 세간의 이름을 뒤로 한 채 29세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 고행과 수행으로 절멸된 그의 삶의 궤적은 이천 육백년이 지난 지금도 피폐하고 상처받은 인간들에게 희망의 빛을 준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부른다. 탐진치로 버무려져 악하고 탁한 세계라는 뜻이다. 행복을 추구할수록 그 행복은 잠시뿐일 뿐 더 큰 고통을 낳길 뿐이다. 요즘 '모자부사',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중생살이가 역시 그러한 것이다. 석가모니는 모두를 끌어안는 차유는 '자비회사'임을 설교하였다. 깨달아서 해탈 열반은 할 때 하더라도 중생의 이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게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그를 칭송한다. 석가모니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외쳤다 한다. 일종의 비유겠지만 이 외침은 내가 하늘 아래 혼자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에서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러는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2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9	3		8
		6		9	
	5		1	8	
8		4	9		2
		5	4	1	8
9	3		2	6	1
			8	4	6
		7		6	
5		2	9		7

7	1	3	6		4	9
3		9		1		
	6			7	9	
1			3			
4			7	2		1
			5			9
		2	5			1
		4			5	6
2	7			6	1	8

7	8	1	9	6	5	2	3	9
9	2	9	5	2	7	1	8	6
2	1	5	6	8	9	2	7	9
6	7	2	8	9	1	9	5	5
1	5	8	2	9	2	5	6	7
9	9	2	7	5	6	8	2	1
5	9	6	2	1	2	7	9	8
2	2	9	1	7	8	6	9	5
8	6	7	5	2	9	5	1	2